

통권 제 245호

강남. 라 00943

2568
2024

3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22
구경의 법



불교이야기
부처님의 성도 3



고전산책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

 불교충지중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진리眞理는 심리心理와 사리事理에

진리가 마음에 다 있으므로 깨닫는 마음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진리가 사리에 있으므로 지혜知慧가 있는 자는 사리에 밝으니라



마음의 등불 _29



살다보면 _34



동행 _49

죽음이란

무엇인가_ 법상 정사

대화의 기술_ 이옥경

길상사 이야기_ 탁상달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0 불교이야기
- 15 마음챙김 메커니즘
- 20 경전에서 찾은 지혜
- 22 문화재 해설
- 26 절기 이야기
- 29 마음의 등불
- 32 산책
- 34 살다보면
- 40 지장스님의 향유
- 43 고전산책
- 46 마지막 공부
- 49 동행
- 52 지혜의 트랙
- 56 마음 밭 가꾸는 이야기
- 60 십선성취
- 64 우리절노래꽃
- 66 서원당 안의 불교
- 68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2 금쪽상담소
- 76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구경의 법 - 김천
- 부처님의 성도3 - 화령 정사
- 감각感覺 - 나와 세상을 잇는 고리 - 임진수
- 지식과 지혜는 다른가 - 불교총지종 법장원
- 윤봉길 의사 선서문_한결같은 적성赤誠으로 독립을 외치다 - 위드다르마 편집실
- 경칩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죽음이란 무엇인가 - 법상 정사
- 목련 - 김대곤
- 대화의 기술 - 이옥경
- 달인 - 지장 스님
-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 - 박소영
- 새봄을 맞이하면서 - 유소림
- 길상사吉祥寺 이야기 - 탁상달
-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 - 방귀희
- '자비慈悲의 갑옷' - 하현주
- MBTI - 남혜 정사
- 연꽃 피어오르리 - 묘원화 전수
- 원상圓相과 육합상六合相 - 해광 정사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

사람이 말하는 것은 2~3년이면 배우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청은 평생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듣는 방식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판단하며 듣는 것, 질문하며 듣는 것,
조언하며 듣는 것, 감정 이입하며
듣는 것입니다.

한자 ‘들을 청聽’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풀이해 보면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고 열 개의 눈으로 보듯
상대방에게 집중해 상대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들어 달라고 떼쓰는 삶’보다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 준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연의 섭리이긴 하나 사람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노력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 편지 2024년 2월 14일 자>



불공 잘해라 구경의 법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4화-창종Ⅳ

1972년 11월 17일 처음으로 서울선교부에 육자진언 본존을 모셨다. 짙은 자주색 비단 바탕에 실담범자(悉曇梵字)로 된 육자진언을 금색실로 수놓아 금색 액자에 봉안했다. 진리의 본체이자 일체 생명의 근원인 법신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형상으로서의 불보살상이 아닌 문자 다라니를 본존으로 모셨다. '옴마니반메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덕 가운데 하나인 관세음보살님의 깊고 미묘한 본심이자 가장 으뜸의 진언이기 때문이다.

유형무형의 진리의 모습을 불상이 아닌 진언다라니 그대로 본존으로 모신 것은 상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마음 본성의 깨



한국 현대 밀교를 일으켜 세운 원정 대성사

달음을 추구하여 진리를 곧게 세운다는 의미이다. 범자 그대로의 진언 다라니를 본존으로 모심으로써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중심 진언으로 지송하는 종단으로서 교의적으로도 완벽을 기했다. 이로써 '옴마니반메훴' 육자대명왕진언을 수행의 중심이자 해탈의 근본으로 삼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진각종을 세울 때 부족했던 안과 밖의 일들을 모자람 없도록 만들어 가르쳤다. 교도들과 스승들도 그 뜻에 감응하여 종단 일에 진심을 다할 수 있었다. 종단에 필요한 경전과 의궤, 법식 등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진 셈이다. 이와 같이 본존과 의식을 완벽하게 갖추므로써 밀교종단의 틀이 다져졌다. 때를 같이하여 곳곳에 서원당이 마련되었으니 총지종의 태동은 창종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각고의 정진과 부처님의 가지력에 힘입어 정순하고 완전무결한 정통밀교 사상과 수행체계를 완성한 원정 대성사는 뜻을 함께하는 교도들과 함께 서울선교부를 개설하고, 1972년 12월 24일 정통밀교종단의 창종을 선포했다. 특히 옛 총지종^{總持宗}과 달리 총지종^{總指宗}으로 한자를 달리 쓴 것은 다라니인 총지^{總持}로써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지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엇보다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내세워 대승불교의 정신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임을 천명했다.

“법신 대일여래를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언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으며 또한 태장계와 금강계 양계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여 당상즉도^{當相即道} 즉사이진^{即事而興}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였다. 특히 이원진리를 밝혀서 물심병진법^{物心併進法}을 가르치는 한편,时时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법을 세움으로써 완전한 교상이 확립되었다.”



불교총지종 소의경전_대승장엄보왕경-대성사 유품

혼돈 속에 출발했던 옛길과 달리 모든 것은 명확했다.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모시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삼고, 소의경전으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의지했다. 태장계와 금강계 모든 경계를 더해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삼으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수행으로 삼고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지혜와 복을 함께 닦아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종교인으로서 현세를 정화하고 이 몸으로 즉시 성불하여 수행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옛날과 다른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아 물질과 마음을 두루 닦도록 하며, 매 순간이 불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불공을 하여 생활이 불법이 되고 불법이 생활 속에 온전히 살아 종교적 수행과 현실적 삶이 일치되도록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총지종

창종의 깊은 뜻이다.

이날 대성사는 스승과 교도들에게 창종의 서원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자기형편이나 자기교화^{自己教化}에만 집착하기보다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워가는 대아적^{大我的}인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현세정화^{現世淨化}에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정진으로 종단의 유구^{悠久}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結實}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總指宗}을 새로 세워 가르침을 펼치는 정신이 널리 밖으로 빛나 세계만방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복덕의 공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종도 모두가 훌륭히 나설 것을 서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일체중생을 위하는 대승의 길을 걷는 것이 밀교행자의 길이다. 그러므로 교도는 자기 수행과 세상 구제의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나아갈 때 총지종을 세상에 펼친 정신이 널리 열릴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빛나도록 원을 세우자고 호소한 것이다.

한번 내디딘 발걸음은 거칠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대성사 홀로 시작한 길은 뒤따르는 이들의 발길에 의해 넓어

졌다.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함께 수행의 길로 나아갈 대승의 수레가 다닐 정통 밀교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날 새로운 종단을 선포하는 의식에서 종단의 서원을 담은 진언이 염송됐는데, 총지종 창종에 대한 큰 바람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었다.

옴자레주레준제 총지종 교세발전 사바하

옴자레주레준제 부국강병 국태민안 사바하

옴자레주레준제 조국평화통일 사바하

옴자레주레준제 일체교도가정제재난 사바하

옴자레주레준제 일체교도가정소구여의 사바하

수행이 개인의 기복에 있지 않고 총지종의 교세가 발전하여 나라와 사회가 평안하고, 조국이 통일되며, 모든 교도의 가정에 구하는 바가 두루 이루어지길 축원하며, 세상살이에 겪는 어려움이 사라지길 바란 것이다.

종교는 개인의 염원에서 출발하여 일체중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바라는 바가 있기에 믿음에 의지하고 고통이 있기에 신앙을 갖는다. 그 출발은 개인적이지만 결국 나라와 뭇생명의 행복을 원하는 것도 종교가 지향하는 바이다. 첫 의식의 서원은 이런 축원을 담은 진언으로 시작되었다. 공공서원의 기본 틀은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부처님의 성도3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무명이 멀하면 행이 멀하고, 행이 멀하면 식이 멀하고, 식이 멀하면 명색이 멀하고, 명색이 멀하면 육처가 멀하고, 육처가 멀하면 촉이 멀하고, 촉이 멀하면 수가 멀하고, 수가 멀하면 애가 멀하고, 애가 멀하면 취가 멀하고, 취가 멀하면 유가 멀하고, 유가 멀하면 생이 멀하고, 생이 멀하면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멸한다.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은 멸하는 것이다.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을 없앤다면 모든 괴로움도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서는 아직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에 의하여 눈을 떴고, 지가 생겼고, 혜가 생겨 깨달음을 얻고 광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을 제거하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입니다. 무명에 의해서 생로병사 등의 괴로움이 생기니 무명을 제거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계송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고요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진리는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의혹은 사라져 버렸다. 연기의 도리를 알았으므로.”

이 짧은 계송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근원을 밝히기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던 사문 고타마 싯 다르타에게 드디어 진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는 곧 연기의 법칙으로서 그것에 의하

여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문 고타마 싯 다르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거듭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밤이 깊어졌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십이연기의 공식을 발생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순서대로 사유하셨다고 합니다. 즉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으며,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하는 식으로 끝에 가서는 생이 있고 이로 인해서 노사와 온갖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사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십이연기의 순관 혹은 유전 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며 하는 식으로 생이 멸하면 노사와 온갖 괴로움이 멸한다는 것을 사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이연기의 역관 혹은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십이연기의 이러한 순관과 역관을 부처님께서 새벽녘에 다시 한번 더 사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고의 발생원인과 그것을 소멸하는 이치를 완전히 파악하시고 감흥에 겨워서 이렇게 계송을 읊으셨다고 합니다.

“고요히 사유하는 성자에게 진리는 드러났다. 태양이 허공에서 내리비추듯 악마의 군대를 마침내 쳐부수었다.”

더할 나위 없는 위없는 바른 지혜에 의해서 누구도 깨닫지 못한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에 생로병사의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자리에서 또 상당 기간 깨달은 내용을 음미하면서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경전에서는 이후에도 그 근처에서 이리저리 옮겨 앉아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좌선하며 사유하신 기간은 경전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것은 3주, 길게는 7주까지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반복하며 보리수 아래에서 7일을 더 보낸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깨어나 일종의 무화과 나무인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가셔서 다시 삼매에 잠겨 해탈의 거움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는 염소 떼들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잎이 많고 그늘이 드리워진 그런 나무였을 것입니다.

『마하박가』라는 율장에 보면 이때 한 교만한 바라문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바라문이 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바

감각^{感覺} - 나와 세상을 잇는 고리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라문이라는 것은 참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계급으로서의 바라문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자를 나타내는 뜻으로 바라문이라고 부른 예는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아마 그 바라문 계급의 사람은 자기가 바라문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바라문이 뭔지나 아느냐 하는 투로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으며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이 청정하며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로서의 바라문은 이래야 된다고 점잖게 타이르셨던 모양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만 묘사해 놓고 더이상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아마 부처님께서 삼매에 잠겨 계실 때 어떤 교만한 바라문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 툭 던진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평범한 대답을 하시자 이 바라문은 흥미를 잃고 그냥 지나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다른 사람과 얘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욕망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감각을 알아야 한다. 감각은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 통로를 통해 세상의 정보가 ‘나’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온 정보는 내 안에서 나의 주관(혹은 선천적인 기질 혹은 업^業과 만나 느낌을 만들어내어 ‘좋고, 싫음,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육체적인 느낌은 감각이 되고 정신적인 느낌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또한 ‘옳음, 그름’과 같은 판단을 하는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 감각은 세상과 나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고 세상에 내가 존재하도록 한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를 상상할 수도 없다.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오고 살아갈 세상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 욕망이 생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의 설명은 사실

내용도 많고 복잡하다. 그냥 읽어가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감각은 내가 세상과 만나는 통로라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감각^{感覺}이다.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과 마주친다.

안 眼	눈	이 耳	귀	비 鼻	코	설 舌	혀	신 身	몸	의 意	뇌 腦
색 色	빛	성 聲	소리	향 香	냄새	미 味	맛	촉 觸	감촉	법 法	생각 심리작용
안식	눈의	이식	귀의	비식	코의	설식	혀의	신식	몸의	의식	생각의
眼識	의식	耳識	의식	鼻識	의식	舌識	의식	身識	의식	+意識	의식

다섯 가지 감각기관 즉 눈·귀·코·혀·몸(피부)은 인간을 세상과 만나게 해 준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오감^{五感} 혹은 오근^{五根}이라고 하며 한자로는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이라고 한다.

이 감각기관은 각각의 대상이 존재한다. 눈은 빛을 통해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느낀다. 눈을 통해서만 사물의 모양, 크기, 색깔을 보고, 귀를 통해서만 음파의 강약과 고저장단 소리를 들으며, 코를 통해서만 향기와 악취를 맡으며, 혀를 통



해서는 다섯 가지 맛을 보고, 피부를 통해서만 접촉했을 때 느끼는 촉점, 눌리는 감각인 압점,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 통점, 차가움을 느끼는 감각인 냉점,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인 온점을 느낀다. 이런 사물(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을 감각기관의 대상이라고 한다. 감각기관과 대상을 짝을 맞춰서 열거하면 눈-사물(빛), 귀-소리, 코-냄새, 혀-맛, 몸(피부)-촉감이다.

이렇게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는 순간 뇌에서는 인식을

한다. 이런 인식작용을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의 인식, 혀의 인식, 몸의 인식이라고 한다. ‘인식’이란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촉할 때 일어나는 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이라고 하며, 이 다섯 가지 의식을 전오식前五識이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 의식은 순수하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통의 경우 감각기관이 모든 대상을 다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만 인식된다. 소리의 경우 낮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밤에는 선명하게 들리기도 한다. 냄새도 냄새를 맡고 조금 지나면 냄새를 계속해서 인지하지 못한다. 맛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 맛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촉감의 경우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촉을 인식한 순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감각기관은 항상 존재하고 접촉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인식이 일어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여섯 번째 인식방법 즉, 육식六識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의 감각과 대상 말고, 의意(뇌)라는 인식의 작용처(생각이 일어나는 곳)와 법法(심리작용:전오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과

육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이라는 인식의 작용대상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인식이 일어나는 방식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의해 인식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같이 생각에 의해 인식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설명하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꼭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통해 생각을 만들어내며, 한 가지 생각이 다른 생각을 낳아 처음 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기억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모든 인식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다섯 개의 의식작용뿐만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낸 의식작용인 여섯 번째의 의식작용도 육식의 대상이 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육식은 앞의 전오식前五識과 함께 ‘현재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칠식七識인 ‘말나식末那識(잠재의식)’과 팔식八識인 ‘아뢰야식阿賴耶識(무의식)’이 있다. 이 의식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고 관념적이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기로 한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가

불교총지종 법장원

미란다왕이 나선비구에게 물었다.

“스님, 지식 있는 자는 지혜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를 함께 가진 사람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미혹되니까?”

“아직 배우지 못한 기술이나, 가 본 적이 없는 지방이나, 들어 보지 못한 이름과 용어 등에 대해서는 미혹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않습니까?”

“지혜에 의해 깨친 것, 즉 무상^{無常}과 고^苦와 무아^{無我}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친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로 갑니까?”

“지혜가 생기자마자 어리석음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어두운 방안으로 등불을 가져 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 그러면 지혜는 어디로 갑니까?”

“지혜는 해야 할 일을 이루자마자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로 얻어진 무상과 고와 무아의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환에게 등불을 밝혀 편지를 쓰게 한 다음 등불을 끄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등불은 꺼져도 편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사라지지만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사가 약을 환자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병이 나은 다음에도 의사는 다시 그에게 약의 효과를 보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은 이제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병이 다 나은 사람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약은 수행이고 의사는 수행자, 병은 번뇌이며 환자는 범부와 같습니다. 약에 의해 병이 나은 것처럼 뛰어난 수행력에 의해 모든 번뇌는 없어지며 지혜는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님, 잘 알았습니다.”

『미란다왕문경 彌蘭陀王問經』불교총전 발췌

윤봉길 의사 선서문

한결같은 적성^{赤誠}으로 독립을 외치다

위드다르마 편집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 거사를 앞두고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앞에서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쓴 선서문입니다. 모두 거사를 앞두고 쓴 윤봉길의 유품으로 자료적 가치가 큼니다.

일제의 폭압에 저항하며 폭탄을 던지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이후 드디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는 1926년 12월 국무령이 되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후 1931년 일본 제국주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비밀 의열^{義烈}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없애고자 이봉창을 도쿄로 잠입시켰습니다. 이듬해 1월 8일 이봉창이 도쿄 경시청 정문 앞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그해 10월 사형됩니다.

1932년 윤봉길은 또 다른 일본 천황 살해 계획을 실행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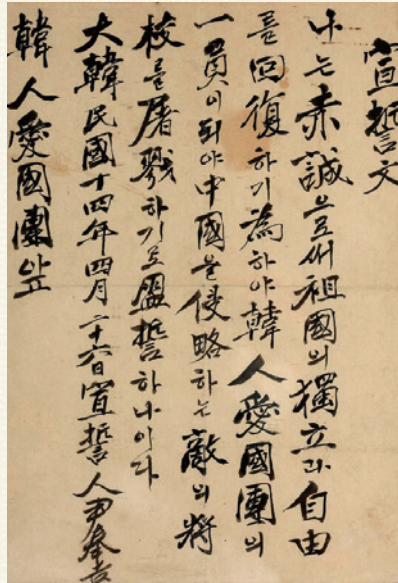
해 한인애국단에 입단했습니다.

윤봉길은 “나는 적성^{赤誠}(한결같은 마음)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원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14년(1932)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이라고 쓴 선서문을 목에 걸고 오른손에는 권총, 왼손에는 수류탄을 든 채 태극기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1932년 4월 29일 일제는 일부러 일본 승리를 죽여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이후 승리를 자축하고 일본 천황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행사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거행했습니다.

3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축하 행사장 단상 앞에는 일본군 장교와 주요 인사들이 자리 잡았고, 뒤쪽 병사들이 경계를 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주요 인사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며 합창이 끝나갈 무렵, 윤봉길은 준비해 간 폭탄을 단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지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사변의 일본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일본 거류민단장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나는 적성(赤誠·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거사장에 나섰다.
윤봉길 의사와 「한인애국단 선서문」, 1932년, 27.0x21.5cm, 신수6269(국립중앙박물관, 서유희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가와바타 등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주요 인사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5월 25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으로 일본군의 철군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봉길은 11월 18일 일본으로 이송되었고, 12월 19일 사형이 집행되어 봉분도 없이 매장되었습니다. 광복 후 1946년 윤봉길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적성으로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다

윤봉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을 지휘한 김구 선생을 존경하여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높이 솟은 푸른 산이여! 만물을 품어 기르네. 저 멀리 서 있는 푸른 소나무여! 사철 변함이 없구나. 빛나는 봉황의 날개여! 천 길이나 높이 날아오르네. 온 세상이 모두 탁한데 선생 홀로 푸르구나. 나이 들수록 더욱 강건하심은 선생의 의기로다. 온갖 어려움 참고 견디심은 선생의 적성(赤誠)이로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윤봉길이 가장 믿었던 분은 김구 선생입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이 시에 오롯이 담은 듯합니다. 한인애국단 선서문에서도 ‘적성’을 강조했고 김구 선생이 독립투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것도 ‘적성’이라고 했습니다.

일제의 강점을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의 독립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 바로 적성(赤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로 ‘계칩^{啓蟄}’이라고도 불리며 양력으로 3월 5일 경이다. 날씨가 따뜻해 각종 초목의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 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중국 후한시대 역사가 반고가 저술한 역사서인 한서에는 열 ‘계^啓’자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蟄’자를 써서 ‘계칩’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후에 서한의 7대 황제 시대에 놀랄 ‘경^驚’자를 써 ‘경칩’으로 변경했다.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 ‘논일원십이회 삼십운’에는 “동면하던 동물은 음력 정월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경칩에 해당하며, 음력 9월에는 동면을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입동에 해당한다.”라고 표기돼 있다.

조선 ‘성종실록’에 ‘우수’에는 삼밭을 갈고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며, ‘춘분’에는 올벼를 심는다고 하였듯이,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한 절기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 린다고 하여 완전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이 물이 낀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 무렵에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 농촌은 담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때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완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같은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농촌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농부들은 겨울 동안의 휴식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할 때이므로 이때 동면에서 깨어나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따라 한 해 일의 많고 적음을 예견했다고 한다.

서양에서 연인의 날이 2월 14일 ‘발렌타 인데이’라면 우리나라의 연인의 날은 3월 6일 경칩이다. 조선 세조 때 간행된 ‘사시찬요’에 따르면 선조들은 은행 껍질이 세모 난 것이 ‘수 은행’이고 둥근 것이 ‘암 은행’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남편과 아내가 경칩 날이 되면 각각 수 은행과 암 은행을 나눠 먹으며 사랑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처녀 총각들은 경칩 날 날이 어두워지면 좋아하는 상대와 함께 은행을 나눠 먹으면서 각자 은행 수나무와 암나무를 돌면서 사랑을 확인했다고 전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새벽, 인류는 ‘생각’의 첫머리에서 이 문제와 맞닥뜨렸을 것이다.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시발점에 이 문제는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이 극대화되고 분초를 다투어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 문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대개의 학자는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단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고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있을 수 없다고도 하고, 죽음의 세계란 인간의 경험 영역, 지각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본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해석에 특히 자기 식의 독단을 많이 개입시킨다. 각자 자신의 안경을 통해 죽음을 보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통일된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생에서 중대 문제이고,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은 삶과 죽음의 구분에 고심한다. 생물계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서, 생사를 가늠하는 기준을 일정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고등 동물인 인간의 죽음을 판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심장고동과 호흡운동의 정지를 표준으로 삼지만 가사상태(假死狀態)인 경우도 있고, 한 때 멈추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의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천수를 누리고 기력이 쇠진하여 저절로 여러 기능이 멈추는 자연사가 있는가하면, 아직 창창한 나이에 뜻하지 않은 원인이 생겨 죽음을 맞는 우연사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오래 사는 것壽’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았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考終命’을 오복의 하나로 꼽았다.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 규정한 철학자도 있고,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한 소설가도 있다.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돌려라. 그리고 미구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대가 아무리 변민할 때라도 밤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변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그리하여 의무란 무엇인가, 인간의 소원이란 어



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가 곧 명백해질 것이다. 아아, 명성을 떨쳤던 사람도 죽고 나면 이렇게 빨리 잊혀지는 것일까!”그리스의 비극 시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이다.

이를 받듯이 몽테뉴(Montaigne, M.)는 그의 〈수상록(隨想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디에서 죽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서 기다리지 않겠는가!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자유를 예측하는 일이다. 죽음을 배운자는 굴종을 잊고, 죽음의 깨달음은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킨다.”

어쨌든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단 한 번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끝막음이다.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며 전신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의문은 다시 되풀이 된다.

너의 고운 살빛이
걸음을 멈추어
가슴을 일렁이게 하고

너의 살빛이
하나씩 벗겨질때
나는 참 슬프기도하다

그 하얀 이별 뒤에는
아지랑이 입고
벅찬 아름다움이 찾아 들겠지?

끊임없는 이 미궁의 시간속에서

아, 나 역시
피고지고 피고지고



대화의 기술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아이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다가, 운동 삼아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시장바구니를 들고 종종걸음을 치다가, 요일에 맞춰 재활용품을 내놓다가, 그렇게 오며 가며 마주치던 이웃들이 눈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다가 마침내 좋은 친구가 되었더라. 10여 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 한 잔을 시작으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기쁜 일 궂은일을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이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새로운 이웃이 생겼다. 짹짹하고 불임성 좋은 여인은 인사성도 밝아서 모두의 호감을 샀고,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한번 두 번... 여인과 만나는 날이 거듭될수록 동기간 못지않게 끈끈한 정을 이어오던 이들 모임에 먹구름이 짙어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새로 합류한 여인의 부정적인 말버릇 때문이었다.

“우리 아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잖아. 전액 장학금이래.” 하는 말에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런 학과 나오면 취직하기 어려울 텐데요.”라고 찬물을 끼얹거나 누군가가 “친정 엄마가 직접 담근 오징어 젓갈인데 맛이라도 조금씩 봐.” 하면서 건네는 젓갈 통을 받아들고는 “짬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데. 젓갈에 1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한다거나 “어머, 먼저 머리가 훨씬 나아요. 돈 들여서 인물 망치셨네.”,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 부모 눈에는 귀여울지 몰라도 소아비만 평생 골치예요.”, “점심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 들고 다니는 아저씨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결혼 7년 만에 집장만도 했겠지만.” 하며 쌍지팡이부터 짚고 나서는 여인의 말이 번번이 이웃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때때로 무안하고 더러는 모욕감마저 느껴지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되어 이들의 관계에 묘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20여 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단 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 신빙성이 없다고 애써 고개를 저었던 일이지는 하지만, 무슨 일이든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앞세운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설마 중국산?”, “약속은 확실한 거야?”, “만약 일이 잘못되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는데...” 뭐 그런 식의... 내게 그런 말버릇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느꼈다면 딱 집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라디오 사연 속 여인이 곱지 않은 말로 매번 이웃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처럼 나 역시 매사 확실하게 맺고 끊어야 하는 성정 탓에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건 아

닌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두어 달에 한 번씩 여행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올 봄맞이 여행은 어디가 좋을까 벌써부터 야단들인데 내 마음은 산뜻하지가 않다. 나와 달리 모두 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인데다가 하나같이 바탕 자체가 선해서 나 역시 죽마고우처럼 허물없이 지내게 된 친구들이다. 서로를 챙기고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이 얼마나 각별한지 객지에 툭 떨어져 사는 내게는 동기간의 정마저 느껴질 정도로 좋은 친구들이라 2~3년 전부터 여행도 함께 다니게 된 건데 오호, 애재라~! 변수가 생겼다.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고향이라는 복병이 여행 내내 그들만의 수다 삼매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 어린 시절 추억담은 물론 앞집 옆집 뒷집의 대소사며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근황까지 줄줄이.... 동심으로 돌아가서려니, 여행길이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사나흘 동안 상관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마치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듯 친구들이 야속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말이 참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 아니던가. 말이라는 게 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같

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마다 태어난 환경이나 교육의 정도, 성격,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불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저 밥 한 끼 먹자는 자리에 서도 외국어까지 섞어가며 오만가지 자랑으로 모두의 입을 닫아버리는 독불장군, 누군가의 말을 툭 자르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자신이 했던 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뒤집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휴대전화에 코 박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말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숫타니파타』에 전하는 말씀처럼 함부로 내뱉은 말이 입안의 도끼가 되어 종내 자신을 찌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던가.

말에는 품격이 있다. 말을 ‘그 사람의 사상에 입히는 옷’이라고 하는 것도 말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천박한 사람일수록 말과 말투가 거칠고 쓸모없는 잔소리나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차고 넘친다. 미사여구로 잘 포장된 유려한 말솜씨가 곧 그의 됴됨이라는 생각도 위험하다. “쓸데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진실이 담긴 한 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이 달리 있겠는가. 말이 많지 않아도, 말을 잘하지 못해도 그것이 진심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다면 소통의 창구는 이미 열린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목수와 이야기할 때는 목수의 언어를 쓰라고 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혀 가라는 뜻일 게다. 이 말속에는 상대방에게 나를 잘 이해시키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도 숨어 있다. 자랑하고 싶은 일이 태산 같을수록,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가 무궁무진일수록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자. 어떤 이는 괴리감으로, 어떤 이는 소외감으로 참을 인^忍자를 무수히 되뇌고 있을지도 모를 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이며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좋은 대화의 필수 조건이다.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고매한 이야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소소한 일상사면 어떻고 머리 아픈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면 또 어떨까. 대화의 주체는 나도, 몇몇도 아닌 우리 모두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성공이다. 목수의 언어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누구나 눈을 반짝이며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금상첨화다. 조심해야 할 일도 많다. 누군가의 고통이나 상처, 갈등에 이러쿵저러쿵 선부른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픈 사람에게는 그저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처럼 좋은 약이 없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말



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현명한 대화의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화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당연히 대화의 기술도 없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말도, 말투도, 경청도, 공감도 배우고 연습해야 익숙해진다.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 그리고 노력해서라도 바뀌야 할 것은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해줄 일상 속 대화의 기술이다.

달인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장자 <달생> 편에 재경이라는 북톨 장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만든 북톨은 정말로 뛰어나서 사람들은 귀신의 솜씨라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노나라 제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경은 간단히 그 원리를 소개합니다.

“우선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조신하고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나 상 혹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닳새 동안 재계하면 비난이나 칭찬, 교만이나 졸렬함 등을 잊게 됩니다. 다시 이레 동안 재계하면 제 손발이나 육체까지도 잊습니다. 그렇게 바깥의 모든 일과 혼란함을 다 잊고 오로지 안으로 마음을 두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된 뒤에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살피고 필요한 모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북톨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난 후 손을 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 그만둡니다. 이것은 곧 저의 천성을 나무의 천성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아주 다양한 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을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미련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탐구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인식을 기울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능력 즉 천성이 계발됩니다. 남들이 보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나름의 인식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장애물이 끼어들면 그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더 넓어지거나 깊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천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지요.

장자 <달생> 편의 또 다른 예화가 이를 말해줍니다. 질그릇을 걸고 활 쏘는 시합을 하면 잘 쏠 수 있지만, 옥고리를 걸고 시합을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황금을 걸고 시합을 하면 긴장해 눈이 가물가물해 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큰 보상이 동기가 되어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어떤 영감은 순수한 상태와 달리 그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 인식의 도약은 마음에 힘이 빠져야 일어나는데 마음에 힘이 들어 갈수록 인식 범위나 수준은 좁아질 것입니다.

의식은 정말로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발견해온 모든 지적자산은 그 의식의 어떤 차원에 있는 아주 작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검색을 하면 언젠가는 찾는 답을 보여주는 생체 도서관 같은 느낌입니다. 천성은 그 정보를 드러내 주는 언어와 같구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명상은 검색의 도구와 방식을 계발하는 방법이 됩니다.

달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달인 중의 달인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한 성공이나 대가를 생각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내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호들을 더 잘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 또한 큰 기쁨입니다.

사람은 만나는 일이나 만물을 접할 때에 대부분 내 생각과 같지 않은 데서 곧 불평이 생겨난다.

人遇事接物, 多因不如己意, 輒生不平

인우사접물, 다인불여기의, 첩생불평

전우^{田愚}(1841~1922) 『간재집^{艮齋集}』 6권 「담홍주후^{答洪周厚}」

대관절 화라는 감정은 왜 주체 못할 지경에 이르러 결국 사태를 곤란하게 만들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칠정^{七情} 중에서 가장 분란을 일으키기에 조심시켜야 할 감정은 바로 ‘노(怒)’이다. 분노라는 뜻의 한자 ‘분^忿’을 파자^{破字}해서 보면 ‘산산조각난 마음’이라 풀이된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지경에 도달하고야 만 마음. 그렇기에 어떻게든 표출되어야 할 마음이란 얘기다.

저자 전우는 홍주후라는 사람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진정 염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특히 사람이 내 맘과 같지 않을 때 곧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 주안점이다. 사람의 생각이란 대개 이치에 따르고 만물에 공평한 마음을 지닌 것 같다가도 만나는 일이



나 접하는 사람이 나의 생각과 같지 않을 경우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노의 특징이란 늘 일시적이다. <명심보감>에서 일권기를, “한 때의 분노를 참으면 많은 날들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忍一時之忿，免百日之憂.”라고 하였고, <논어>에서는 “한 때의 분노로 자신을 잊고서 그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친다면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一朝之忿，忘其身，以及其親，非惑與?”라고 하였듯, 분노란 정말 한때

다. 격노하는 그 순간엔 영원할 듯 제어할 수 없는 폭발적인 감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드는 순간이 꼭 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마냥 참는 것만이 능사일까? 그저 꼭꼭 눌러 담고 참기만 하면 언젠가 화는 더 커져 터지고 말 것이다.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일단 ‘화火의 방房’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이다.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그 곳에서 일단 몸을 대피시켜 따사로운 햇빛과 일렁이는 바람 아래 걷고 또 걸으면서 정처 없이 자연 속에 거닐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이리저리 부서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제자리를 조금씩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의 순간 상대방에게 분노하여 폭언하거나 만행을 저지르지 않은 자신을 기꺼이 안아주며 잘했다고 하게 될 것이다.

선철先哲 공자가 조언해 준 것처럼, “분노에 휩싸일 때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한다 必思難.”도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분노 때문에 삶이 더 고달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본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새봄을 맞이하면서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입춘이다. 설날이다. 새봄이, 한 해가 시작된다. 한 살이 더해진다. 몸이, 인생이, 저 끝머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그냥 평온하다. 환갑이 되도록 따라붙던 조급증, 초조함,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헛헛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인지 고요해진 것이다.

두 아이가 대학생이던 시절, 아이들을 떼어놓고 산골로 들어왔다. 오랫동안 바라온 자연 속의 생활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막연히 어떤 수행 같은 ‘호사’도 염두에 있었다. 말하자면 팔자 편한 ‘성공한’ 은퇴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 알 수 없는 증세는 여전했다. 그것은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책을 읽는다. 그 책이 좋으면 좋을수록 얼른 읽고 또 한번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따라붙는다. 집안일을 하면 허겁지겁한다. 이런 허드렛일은 얼른 끝내고 무언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그런데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 별 중요한 일도 없고 마음만 헛헛했다. 무엇이 불만이지, 하고 물어도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산골 생활 6년째 되는 해, 앞산 조그만 절에서 만난 비구니 스님이 오셔서 ‘동사첩’이라는 공부터를 일러주었다. 오대산 가까운 산골에서 지리산 가까운 곳과 인연이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 봐도 신기한 일이다. 그곳에서 비로소 그 허전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본래 온전한 존재인 우리가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리는 긴급 신호요 고통의 호소였다.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끝없이 발하고 있는 온전함에 대한 끈질길 그리

움이였다. 진정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호소에 귀 기울이고 근본 원인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존재를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본래의 행복으로 회복하는 일이었다. 동사섭과 인연되어 8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사무치게 이해하고 있다.

존재계는 중중연기하는 한 덩이요 찰나무상한 본래 초월의 세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한덩이를 무수 아이템으로 실체화했다. 먼지만도 못한 파편으로 전락한 ‘나’는 나머지 무수한 파편들 사이에서 늘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헛헛증을 앓는다. 존재계 유일한 현장인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고 언제나 지나간 과거 혹은 오지 않는 미래로 인해 허깨비처럼 방황한다.

스승이 처방을 주셨다. ‘그냥 있음’이라는 사다리로 올라가 본래 온전한 의식을 경험해보아라. 이 존재계는 본래 어떤 개념도 쥐고 있지 않고 무념으로 그냥 있다.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한 정도 없다. 그 본래의 무한을 느껴보아라. 본래 온전하다는 것을 깨우치면 더이상 무엇을 욕구하겠느냐. 욕구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무욕의 평화가 충만할 것이다. 그 처방으로 오늘도 세세생생의 숙환_{宿患}을 날려 보낸다. 고요함과 평화가 점점 일상으로 녹아들고 있다.

성북동 길상사_{吉祥寺}는 삼청각과 오진암과 더불어 당대 3대 요정이었던 7,000여 평에 달하는 대원각을 자야_{子夜}(본명, 김영한_{金英韓}, 1916~1999)가 법정 스님에게 기부하여 세운 불가의 도량이다.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1천억 원 상당의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_{大苑閣}’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소유’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야라는 인물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여자 몸으로 38선을 넘어 서울 피난을 와 당시 대한민국 3대 고급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을 설립(1953년)하여 한국 재력가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녀에게는 백석 시인과의 연정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백석은 당나라 시인 이백_{李白}의 ‘자야오가_{子夜吳歌}’라는 시 제목에서 따와서 ‘자야_{子夜}’라는 애칭을 그녀에게 지어줬다고 전해진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인 ‘자야’와의 러브스토리는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만큼이나 듣는 이의 가슴을 찡하게 한다. 백석이 헤어진 자야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가 그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란 시이다.

평생 백석을 애타게 그리며 살았던 그녀는 폐암으로 1999년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시주를 받은 법정 스님은 창건 법회에서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넨다. 법회에 참석한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그녀는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제가 대원각을 절에 시주한 소원은 다만 이곳에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재산을 시주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라는 한 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천억 원 재산이 저에게는 백석, 그 사람의 시 한 줄보다도 못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시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화장해 눈 많이 내리는 날 길상사 경내에 뿌려 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 백석에게로 눈이 폭폭 내리는 날 백석에게 돌아가고 싶어했던 마음을 전한 것이다. 다비식을 마친 그녀의 범명 길상화의 뿔가루는 길상사 경내에 하얗게 쌓인 흰 눈 위에 뿌려졌다.

길상이란 말은 길사유상^{吉事有祥}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해서 부귀와 행복 등 길함의 기운이 인간 현실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덕주 자야의 청아하고 맑은 범



종 소리를 흠모하는 수양 정신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큰 자비심도 함께 담겨있다.

사찰에서 이 단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불, 즉 깨달음을 통해 번뇌로부터 벗어나 부처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가르침으로 승화된 용서와 화해를 나눔과 배려로 세상에 성불하는 깨달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이다. 우주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의혹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상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문득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 떠오른다. ^故김학묵 선생은 경성방송국 아나운서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음악프로그램 진행 중 ^창을 부르러 나온 기생을 소개하면서 여사라는 호칭을 썼다고 지탄을 받았다. 기생한테 여사님이란 호칭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었다. 젊은 아나운서는 그 문책 사유에 절망하여 사표를 냈다고 필자에게 말씀해주셨다.

그분 마음 속에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기생이라는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업의 귀천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그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젊은 청년에게 사회복지의 길을 걷게 하였다. 김학묵선생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회복지란 개념을 도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다. 1960년 4.19 직후 허정 총리가 수반으로 있던 과도내각에서 보건사회부 차관을 지냈다. 이때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를 조달해 와서 배분하는 중책을 맡았다. 1965년에는 〈사회사업개

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전문서이다.

사회 초년생인 필자에게도 여사라는 호칭을 쓰셔서 화들짝 놀라면 경성방송국 일화를 말씀하시며 ‘이제 마음껏 여사로 불러도 돼, Mrs, Ms. Miss 모두 여사야. 우리나라는 결혼한 부인의 높임말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여성 차별이야. 누구의 부인이어서 높여주는 것이잖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항상 레이디 퍼스트였다. 손님 이든 직원이든 모든 여성에게 예의를 갖춰 해주셨다. 당시에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빨간 나비 넥타이를 멘 노신사가 여성을 배려하는 에티켓에 인간애가 느껴졌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김학묵 선생의 장애인 사랑이다. 그분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정부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 장애인단체 일을 맡아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미했던 시절인데 어떻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여 여쭙본 적이 있었다.

셋째 아들이 모든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베체트씨병을 앓았는데 시신경에 생긴 염증으로 홍익대학교 미대 재학 중 시각장

애인이 됐다고 하였다.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되었고,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도 되지 않아 8년간의 투병 끝에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연을 말씀하시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복지에 몸담았다고 하셨다. 그제야 김학묵 선생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KBS TV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을 무렵 김학묵 선생의 큰아드님이 <용의 눈물> 김재형 PD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께서는 장애인 아들 말씀만 하셨고 다른 자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생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장례식장 곳곳에 최수종 등 유명 탤런트들이 조문을 와서 깜짝 놀랐다. 스타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학묵 선생은 2001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해방 후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공부하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에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 당시로서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지만 늘 약자만을 생각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반을 김학묵 선생이 마련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



람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헌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분이 실천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평등사상은 불교의 평등사상과 다르지 않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늘 강조하셨던 것도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다. 선생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분이 후대의 남긴 업적은 베풀고 거두워준 아름다운 보시행이라고 생각한다.

‘자비^{慈悲}의 갑옷’

하현주

동국대학교 선학 전공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증일아함경』 권 39에서 부처님은 ‘자비의 갑옷을 입고, 손에는 삼매의 활과 지혜의 화살을 들고’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자비는 타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행위이며, 고통을 함께하면서 정서전염도 일어나고, 또 공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로로 인해 오히려 소진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자비가 갑옷이 된다는 것일까?

자비 연구를 막 시작하던 박사과정 초기, ‘자비의 갑옷’이라는 경구는 나에게 화두가 되었다. 상담자인 필자가 내담자들에게 때로 너무 과도하게 공감하고, 또 그들의 고통에 전염되거나 내 고통과 분리하지 못해 소진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왜 우리는 자비로워야 할까, 또 어떻게 자비가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비나 선행을 실천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자원봉사와 같은 선행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로도 불린다.

앨런 루스는 이처럼 남을 돕고 난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포만감을 돕는 자의 고양감(helper's high)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직접적인 도움 행동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비명상을 통해 간접적인 자비를 실행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티베트 승려들의 뇌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왼쪽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놀라울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과 연관이 있는 오른쪽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비명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및 회복력, 면역력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비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도와 사회적 연결감을 증진시키고, 집단 내의 편견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자애명상이 스스로를 향한 자기자비(self-compassion)도 강화시켜, 남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어진다는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어떻게 타인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이 자신의 심신 건강에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일까? 자비 연구 분야에서 선



도적인 역할을 해 온 폴 길버트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신경 체계를 가동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경 체계는 엔돌핀이나 옥시토신과 관련되어있어, 사랑받는 느낌의 안녕감과 내적

인 고요, 타인들과의 연결감을 가져오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구축한다.

즉, 긍정 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은 신체의 이완 상태를 불러오고, 이완 상태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면역력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건강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의 복측선조체는 자신이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자선 단체에 기부금이 전달되는 것을 볼 때도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두뇌 체계는 신기하게도, 자기와 타자가 받는 보상을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도우려는 자비의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도 즉각적인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 경감되기를 바라고 도움으로써, 자신의 고통 또한 무의식적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며, 자비는 따라서 상호치유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 고통으로 가득한 사바를 건너는 우리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께 치유하고 보호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비는 매순간 장착해야 할 가장 안전한 갑옷이 될 것이다.

요즘 TV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에 MBTI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주변사람들이 가끔씩 MBTI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MBTI에 대해 알고도 싶고 나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MBTI 검사를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INFJ-A 라는 결과를 얻었다.

MBTI는 칼 융(Carl Jung)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성격 유형을 가지고 분류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 검사이다. 1921년~1975년에 브릭스(Briggs, Katharine Cook)와 마이어(Myers, Isabel Briggs) 모녀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하여 마이어-브릭스 성격 진단 또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도 한다.

MBTI는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MZ세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MBTI는 에너지의 방향성,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양식의 4가지 지표를 조합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타내며,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향이면 E 내향이면 I, 인식의 기능이 감각이면 S 직관이면 N, 판



단과 결정이 사고면 T 감정이면 F, 생활양식이 판단이면 J 인식이면 P이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냉정하게 사고하다가도 감정에 복받쳐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냉정하게 사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처럼 변화 무상한 사람의 마음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것이 MBTI이다.

경쟁 사회에 내몰린 MZ세대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MBTI라는 셀프 분석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이러한 셀프 분석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MBTI는 내가 처한 상황이나 검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을 단정지어버리는 지표가 아닌 ‘내가 이런 성격 유형이구나, 상대방이 저런 성격 유형이구나’의 참고지표나 재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MBTI를 성향이나 성격 분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는 나와 맞지 않는 MBTI야, 너와 나는 어울리지 않을거야’라며 상대방과의 미래를 단정지어 버린다. 그리고 요즘 10대들은 친구 하고 싶은 MBTI가 정해져 있다고들 한다. 인과연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인간관계는 사실 열려 있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일 것인데 그 거대한 우주를 알파벳 4글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MBTI를 맹신해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품거나 쉽게 판단하면 상대의 실체와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이는 타고난 성격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내가

이 삶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믿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 MBTI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야지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명은 정해진 게 없으며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노력여하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서는 열반에 드시기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변하고 없어지고 소멸할 것들을 애착하고 집착하고 욕심내는건 어리석은 일이다.

연꽃 피어오르리

김희경 작곡 / 덕신 스님 작사

묘원화 전수

벽룡사

연꽃 피어오르리

덕신 작사 / 김희경 작곡

♩ = 66 *p* *mp*

1. 청 아
2. 중 생

5 *mf* *mp*

한 한 줄 기 의 연 꽃 송 이 피 어 오 르 니 만 다
의 무 명 번 뇌 무 - 시 겁 내 려 오 - 며 한 없

9 *mf* *p*

라 화 - 향 내 음 이 시 방 - 세 계 두 루 - 하 네 -
이 - - 쌓 이 어 서 본 래 - 청 정 잊 었 - 다 네 -

13 *mf* *f* *mf*

그 향 기 맡 는 이 는 마 음 마 다 연 꽃 피 어 사 바 의 속 진 - 번 뇌 모 두 다 사 라 지 고
연 꽃 에 피 어 남 은 천 진 모 습 일 깨 워 서 깨 끗 도 더 러 - 움 도 가 까 기 아 니 하 고

17 *mp* *mf*

이 르 는 곳 곳 마 다 - 연 화 장 세 - 계 로 - 세
자 신 의 본 래 마 음 - 그 대 로 지 - 켜 주 - 네

21 *f* *mf*

아 - 연 꽃 이 여 청 아 하 고 아 름 다 - 워 라 내 마

25 *p* *mp*

음 연 꽃 같 이 영 원 히 피 어 - 나 리

Copyright © 2014. 12. 12. 묘원화

30여 년 동안 300여 곡의 찬불가를 짓고 그 노래를 부처님 전에 실어 나르며 사는 분이 있다. 현 조계사 혼성합창단 지휘자,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장 김희경 작곡가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유년을 보낸 김희경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고향 판과 상엿소리에 끌렸다고 한다. 7살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잘 부르시던 회심곡도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되어 선생님의 음악 정체성에 영향을 끼쳤다. 중앙대 서양작곡과에 진학하여 각종 음악제와 콩쿨에서 수상하였으나 재학 중 국악과 수업을 도강하며 우리 소리, 한국 음악이 하고 싶었던 김희경 선생님은 유학을 접고 한국 음악 학업에 진지하게 매진한다.

1991년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을 창단하고, 조계사 어머니합창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불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찬불가를 통해 한국의 소리를 녹여내며 대중화에 힘썼다. ‘지장보살송’ ‘왕생극락의 노래’ ‘님의 소리’ ‘연꽃 피어오르리’ ‘구름 걷힌 달처럼’ ‘보리심’ 등 많은 익숙한 곡들이 있다. 이후 교성곡으로 1996년 〈불발에 피는 꽃-찬! 지장보살〉, 2023년 〈회당-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를 무대에 올렸다.

〈연꽃 피어오르리〉는 여러 종류의 당김음이 사용되어 청아한 연꽃의 모습과 향이 밝고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심신이 청아한 연향으로 가득한 느낌이 들게 하는 노래이다.

원상_{圓相}과 육합상_{六合相}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불교총지종을 나타내는 상징물(마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밖(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상입니다.

마치 지붕위에 십자가가 있다면 교회라고 인식하듯이, 옥상 철탑위에 동그란 상(원상)이 있으면 그곳은 총지종 절입니다.

원상은 비로자나부처님을 나타내는 원융대도_{圓融大道}의 가르침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융의 원_圓은 시작과 끝이 없는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융_融은 분리될 수 없고 합쳐진 하나를 표현합니다.

두번째, 육합상은 총지종 교의_{敎義}(신앙내용의 주된 가르침)의 상징이고 종지_{宗旨}(종교의 근본이 되는 뜻)를 표시합니다. 서원당(법당)안의 불단이나 스승의 가사, 교기_{敎旗}와 건물, 의복, 땃지 등에 그려져 있습니다. 모습은 중앙에 원으로 되어 있고 원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연꽃잎과 가시 광선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무시무종_{無始無終}의 뜻이며, 우주의 운행_{運行}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일여래_{大日如來}는 곧 태양을 의미하므로 원



대전 만보사 원상



서울 총지사 서원당 육합상

에서 광명을 발사하는 뜻으로 표시됩니다.

여섯 개의 꽃잎은 연꽃을 표시하며, 음마니반메흠,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합_{六合}(동서남북상하), 육도(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육근(안, 이, 비, 설, 신, 의), 육경(색, 성, 향, 미, 촉, 법), 육대(지, 수, 화, 풍, 공, 식), 육관음(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십일면관음, 준제관음, 여의륜관음)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자진언_{六字真言}중 마니는 원_圓이며, 반메는 연꽃이고, 원은 남성이고, 연꽃은 여성을 나타냅니다. 원은 물질(과학)이요 연꽃은 심성(종교)이어서 물심불이_{物心不二} 뜻입니다. 원은 현실, 연꽃은 진리를 나타내어 보리 즉 깨달음을 표현하고, 육합상의 형상 도식은 중앙원은 붉은색이고 바탕은 노란색입니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동물음악회 Animal Concert

PART2. 애니메이션과 캐릭터_동물음악회

만약 동물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연다면 어떤 모습일까?

동화 속 동물들의 음악회를 전통등으로 표현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상 속 동물들은 모두가 즐겁고 흥겹다.



동물음악회 Animal Concert



동물음악회 Animal Concert



동물음악회 Animal Concert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2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03. 앉을 때 바르게 앉지 못하는 아이

평소 바닥에 앉을 때 허리를 굽히고 다리가 영문자 W자 형태로 앉거나 자주 누워서 지낸다. 책상다리 자세를 어려워하여 주로 W자 형태로만 고집하여 앉는다.



● 원인

- 1) 신체적인 변화로 바르게 앉지 못하는 경우
- 2) 오랜 시간 휴대폰 사용으로 목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거북목증후군까지 동반된 경우
- 3) 고관절에 문제가 생긴 경우
- 4) 쇼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자세가 잘못된 경우

● 지도방법

올바른 앉기 자세

- 1) 허리를 세워야 오래 앉을 수 있다.
- 2) 허리와 엉덩이는 의자 끝에 딱 붙이고 앉는다.
- 3) 상체를 곧게 펴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4) 다리를 꼬지 않는다.

5) 턱을 괴거나 삐딱하게 앉지 않는다.

6) 거북이 목처럼 목을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자세를 바로잡는 올바른 생활습관

1) 좌식보다는 입식 생활을 한다.

2) 베게는 높지 않아야 한다.

3) 똑바로 누어 잔다.

바른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어릴 때의 바른 자세 형성은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릴 때 자세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학습능력과의 연결이 되어 있다. 학습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지난 호 정답

①㉓ 원	정	㉒ 기	념	㉑ 관		㉔ 간		② 현	㉕ 정
리		부		③ 세	시	풍	속		월
④ 금	㉖ 고		⑤㉔ 시	청		기		⑥ 등	대
	정		가				㉗ 기		보
⑦ 자	비	희	사				⑧ 고	드	름
	용			⑨ 여	㉘ 유	만	만		
㉙ 독					유		⑩ 장	발	㉚ 장
⑪ 도	독		⑫㉙ 백	지	상	태			유
새			두		종		⑬㉙ 식	용	유
⑭ 우	공	이	산			⑮ 지	혜		서

지난 호(02월) 정답에 참여해주신
박지환 님 고맙습니다.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⑫㉑	
						⑮			
③		㉑		④	㉑			⑤	㉑
		⑥							
					⑦		㉑		
⑧㉑			㉑				⑨	㉑	
			⑩			㉑			
⑪		㉑			⑫				㉑
		⑬							
⑭						⑮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불교총지종에서 '진호국가불공'시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외우는 진언
-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 밀가루를 달걀에 반죽하여 만든 이탈리아식 국수
- 사람에게 잡힌 물고기나 새, 짐승 따위를 산이나 물에 놓아서 살려 주는 일
- 말을 타고 하는 운동 경기
- 공기의 중요한 성분인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
- 병 따위의 닫힌 뚜껑을 따는 기구
- 번개가 치거나 부싷돌이 부딪칠 때의 번쩍이는 빛이라는 뜻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동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
-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
-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고구려 때 한강을 부르던 말로, 서울시 수돗물 이름
- 놀이에서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
- 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
- 하루의 장사에서 또는 장사를 시작하여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 복판의 한가운데

세로 열쇠

-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남자'라는 뜻
-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방
-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
- 절의 사무나 경리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스님
-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욕을 다듬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
-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큰 고통
- 젤라틴, 계란 흰자, 설탕, 향료, 색소 등을 섞어 거품이 일게 한 다음 굳힌 과자
- 학교를 열다
- 격파, 차 끌기, 쇳물 머금기 등의 힘과 기합으로 하는 묘기
- 화초를 심고 가꾸는 그릇
- 직류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고 축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
- 중국 선종의 개조, 불가의 그림 '달마도'
- 생김새나 행동, 마음 따위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노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법 공 보명심 성 화 사 신 정 회
우 인 이인성 이수영 이해성 주 건 안한수
자선화 총지화 한미영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창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 나이 열 살이 좀 넘어서다.
키우던 3개월 된 강아지 복실이가 없어졌다.
아버지 새벽 산책을 따라나섰다가
그 어린 것이 길을 잃었다.
그 후 일주일 즈음 지나 꿈에서 나는 보았다.
대문이 비슷한 동네 어느 집에 복실이가 있었다.
아침 일찍 그 집을 찾아 헤맸고
그곳에서 나는 결국 복실이를 데려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다.
수학문제를 못 풀고 잠이 들었다.
몇 밤이 지나 잊고 있던 그 문제를 꿈에서 마주했다.
그리고 밤새 숫자와 씨름을 하며 나는 꿈에서 깨었다.
학력고사를 보는데 낮익은 문제가 나왔다.
꿈에서 보았던 그 문제였다.
나는 다행히 어렵지 않게 풀이를 했다.

위드다르마 가로세로 퀴즈를 만드는데
00석0 답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이 안 났다.
마감을 앞두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상절석보'라는 단어가 나타나 께다.
전광석화처럼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석보상절'을 '상절석보'라니...
새벽부터 일어나 생각하니 픽 웃음이 났다.
결국 답은 찾았다.

현실이 꿈이 아니라고 해서
꿈이 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끔은 꿈이 답을 줄 때도 있다.

발 행 일 총기 53(2024)년 3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3월호



그대 서원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퇴전하지 마라
지금껏 쌓아온 공덕은 헛되지 않느니라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저것이 성취된다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